

# 충성대신보

제 189호

2021년 7월 5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여운태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황수현 / 논설위원 황수현 송경재 민병후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이경미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 02 학교소식 | 김한민 감독 홍보대사 위촉
- 04 학교소식 | 학군교류협약·초빙강연
- 05 학교소식 | 전·출입 및 전역·퇴직자명단
- 06 생도광장 | 제40대 생도대장 임국기 준장 취임
- 07 생도광장 | 생도의 휴식처 / 파리바게뜨

- 09 생도광장 |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 10 오피니언 | 충성대칼럼
- 12 교양 | 트렌드 코리아 2021 <자본주의 키즈>
- 14 동문소식 | 동문(同門)의 소리 / 김명철
- 16 발전기금 | 발전재단소식



호국간성의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교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 영화 '명량' 김한민 감독 홍보대사 위촉



▲ 학교장(소장 여운테)이 김한민 감독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최다 1,700만 명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던 기념비적인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육군3사관학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학교장(소장 여운테)은 6월 25일, 7천 8기의 도전정신으로 영화계에 입문하여 최종병기 활(2011년), 명량(2014년)을 통해 국난극복의 우리 역사를 재조명하며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 온 김한민 감독을 홍보대사로 선정



김한민 감독

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김한민 감독과 학교는 올해 3월, 3사 56기 장교 임관식에 김 감독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맺은 첫 인연을 이날 홍보대사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온 것이다.

위촉식에 이어 김한민 감독은 학교 강의형 스튜디오에서 '김한민 감독이 들려주는 리더와 통합의 아이콘 - 이순신 장군'이라는 연제로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좌담 및 원격강연을 가졌다.

김 감독은 생도들에게 '만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여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장교가 되기 위해 사관생도로서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다음은 강연 간 진행했던 생도들과의 Q&A 일부이다

**Q** 이순신 장군 외에 영화에 인물화 하고 싶은 장군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영화를 만들 때 큰 맥락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중요한 인물이 포착된다면 인물화하여 영화 제작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Q** 젊은이들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들을 본받았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 환경적인 요인부터 시작해 국가관, 가치관,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정신 등의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느끼며 본받을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Q** 생도들이 전시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A** 대한(大韓)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대한은 삼한을 일컫는 다른 말로써 한반도 전역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듯이 여러분들도 대한의 뜻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 속에 지닌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영웅적인 면모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 생도들이 예모를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있다

평가관리실장대령 김호길은 "홍보대사 위촉이 학교와 육군의 우수 인재회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령 임문택

## 포항공대와 함께 미래 전장의 핵심 AI 향해 가속 페달

6월 21(월)부터 4박 5일간 KAAI Week 주간 설정, AI 집중교육

학교가 올해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한 포항공대(인공지능대학원)의 지원 하에 AI·Big Data 온라인 과정을 도입했다. 미래 전장의 주역인 생도들에게 전장의 핵심인 AI에 대한 이해의 싹을 틔우기 위해 학교와 지난해 인공지능대학원 AI 산학협력센터를 구축한 포항공대가 손을 잡은 것이다.

\*KAAI: KAAI(육군3사관학교) + AI(인공지능)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전 기간 그룹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의 프로그램은 AI·Big Data 기초과정과 특강으로 구분하여 AI 입문, 사물인터넷,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팅 사고, 데이터 사

이언스를 위한 통계학 입문 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4학년 전 생도들은 노트북과 개인용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일일 정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며, AI 이해, AI 활용은 물론 AI 윤리에 대해서도 심층 깊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마련하여 학습에 대한 붐 조성하고 동기부여는 물론 생도들의 흥미를 끌어내고 있다.

**미션 I. 시를 지배하라!**

\*AI 기초/특강 7개 과목 이수, 기초소양 합양

**미션 II. 시를 정의하라!**

\*시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1줄 평가 "시인"이다

**미션 III. 시를 체험하고 상상하라!**

\*AI 영화를 통해 기술발전에 대한 질문과 고민

대위 박광선



▲ KAAI Week 포스터



▲ 노트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3학년 생도

## 웅진씽크빅 기증도서 나눔 이벤트 진행



▲ 웅진씽크빅 기증도서 나눔행사현장

생도, 장병,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증도서 나눔 이벤트가 마련됐다. 웅진씽크빅이 문화적 소양 함양과 생활 속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에 기증한 40종, 210여 권의 양서가 희망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도서관 1층에 별도로 전시된 도서를 확인하고 희망 도서를 응모한 뒤 추천 및 개별공지를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한편, 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동문들의 도서 기증의 취지를 살리고자 기증자의 명칭을 딴 OOO Zone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전시 후



도서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 도서관장(중령 문장권)이 희망도서 응모권을 추천하고 있다



### 호국보훈의 달,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는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영천 호국원을 찾아 추념식을 가졌다.

이어서 교내 중훈비로 이동하여 자치근무제 생도 30여 명과 함께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무관 길진규**



###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 최우수상 수상

위국헌신의 리더십을 교류하는 학술교류의 장

2021년 공군사관학교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가한 사관생도들은 본선에 4개 팀이 진출하여 2개 팀(9명)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주제로 각군 사관생도 및 일반대학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펼쳐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백지연·유재준·인영진·박현태·박정주 생도는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배재섭·박보화·김지윤·박정우 생도는 '작은 관심 리더십, 리더 심이'라는 주제로 UCC 동영상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령 최재호**



▲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지연, 유재준, 인영진, 박현태, 박정주 생도



▲ 우수상을 수상한 배재섭, 박보화, 김지윤, 박정우 생도

### 육군3사관학교 - LIG넥스원 MOU 체결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방 R&D 발전 앞장

5월 14일 학교는 LIG넥스원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국방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 국방기술 연구, 국방 분야

산·학 협력 연구과제 공동추진, 생도 방위산업 현장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날 협약 체결뿐만 아니라 전공학과 생도와의 간담회, 국방 과학 기술 협력방안 토의 등을 진행하며 상호이해를 넓히고 협력 의지를 공고히 했다.

**대위 이지수**



▲ 창의융합공학실에서 LIG넥스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실험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 학무관 스터디 카페(Study Cafe) 개관



학교는 사관생도들의 휴식과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학무관 스터디 카페(Study Cafe)를 6월 17일부터 개관했다. **주무관 길진규**

◀ 기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생도



▲ 학무관 스터디 카페(Study Cafe) 내부 전경 1



▲ 스터디 카페(Study Cafe) 내부 전경 2



#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디딤돌 학군교류협약

주무관 박원형



## POSTECH 육군3사관학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약식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15:00 / 장소: POSTECH



## 가정의 달, 호국보훈의 달 초빙강연

주무관 김민수







5, 6월 학교 간부 전 · 출입 및 전역 · 퇴직자 명단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학교본부 계획운영처  
보안편제담당  
설청민 주무관



교수부 인문학처  
법정학과  
소령 최성운



교수부 이학처  
화학환경과학과  
소령(진) 윤정우



학교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장교  
대위 박광선



생도대 인사행정장교  
대위 이양우



교지대 2중대장  
대위 김현우



생도대 4훈육장교  
대위 김대섭



근지단 정작장교  
대위 김병준



근지단 영선대 운영장교  
소위 조현명



근지단 보급근무대  
2·4중 보급장교  
소위 문주호



근지단 정비근무대  
수송소대장  
소위 리서연



교수부 공학처  
건설공학과  
소위 윤정원



교수부 이학처  
국방시스템과학과  
소위 이원재



교수부 인문학처  
심리학과  
소위 임소정



교수부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과  
소위 조대현

**전출**  
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행정부 군수계 획과장 대령(진) 이무이 ◯ 28사단
- 생도대 여훈육장교 소령(진) 박수영 ◯ 남수단 재건지원단
- 교육지원대 중대장 대위 박성찬 ◯ 2직전사령부
- 공보정훈실공보정훈장교 대위 이지수 ◯ 1사단
- 교수부 사회학처 정치외교학교수 소령(진) 김상준 ◯ 연합사단
- 근무지원단정비근무대 차량정비부사관 중사(진) 이상혁 ◯ 60사단
- 교육지원대 지원소대장 상사(진) 최용성 ◯ 12사단
- 행정부 군수계 획과환경관리담당 7급 김인수 ◯ 특수전 사령부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수송소대장 중위 홍병권 ◯ 8사단
- 행정부 인사행정과장 중령 최준호 ◯ 인사사령부
- 생도대 4훈육장교대위 박민수 ◯ 7군단
- 생도대 7훈육장교대위 김진용 ◯ 2군단

**전역 퇴직** 영광스러운 전역 ·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

- 계획운영처 보안편제담당 7급 김미혜
- 교수부 교학처 교육계획담당 5급 강옥중
- 교수부 인문학처영어학 교수 중위 이지성
- 교수부 인문학처군사사학 교수 중위 양웅석
- 교수부 사회학처법정학 교수 중위 정영진
- 교수부 사회학처법정학 교수 중위 최우혁
- 교수부 공학처 전자공학 교수 중위 김가람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 운전교육담당 7급 김병찬
- 군중실 신앙선도장교(신부) 대위 이승남
- 군중실 신앙전력장교(법사) 대위 김영담







# 제40대 생도대장 임국기 준장 취임!

6월 3일 임국기 준장(3사 29기)이 제40대 생도대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임국기 생도대장은 56사단 218여단장, 2작사 지휘통제실장, 통합방위작전과장 등을 역임한 군사전문가이자 부대원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덕장으로 알려져 향후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9대 전임 생도대장 김호복 소장은 지난 11월 20일 제52보병사단장으로 취임했다. 57기기자생도 장석수



## 생도 기고문

### 예방적 관찰 라이프



58기 김관우 생도

2021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 홍보를 위하여 출장을 다녀왔다. 유능한 후배들을 찾기 위해 기초군사훈련 이후 100여 일 만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홍보출장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

라탤다. 늦은 오후 집에 도착 후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행복감을 느꼈다. 26일부터 28일까지 홍보 활동을 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웹엑스(Webex)로 원격 수업을 듣고 PCR 검사 결과를 확인 후 무사히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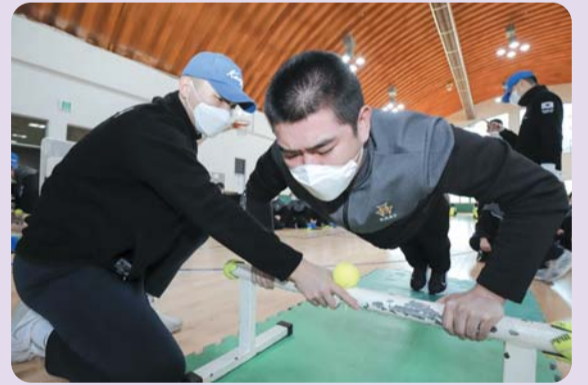
예방적 관찰 기간에는 평소 일과 때보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많았다. 나는 이 점을 잘 활용해서 슬기롭게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목표는 2가지였다. 첫 번째는 토익 점수 향상, 두 번째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향상이었다. 첫 번째 목표, 토익 점수 향상을 이루기 위해 공강 시간을 잘 활용

하기로 했다. 아무 의미 없이 유튜브나 SNS를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값지고 생각했다. 공강 시간에 과제와 각종 보고서를 미리 끝내고, 학습시간에는 토익 공부에 전념했다. 이틀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었다. 그 결과로 내가 목표하는 점수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두 번째 목표, 5월 22일에 있을 체력측정을 대비하여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개수를 늘리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하였다. 쉬는 시간마다 오래 앉아 있어 빠근한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고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간을 통해 느

낀 것이 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배했을 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 2021 생도 주간(Cadet Week) 행사

멋과 낭만이 있는 생도문화 화를 조성하고,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한 생도 주간(Cadet Week) 행사를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

다. 이번 행사에서는 KAAY 리그(축구·발야구), 야외영화제, 삼겹살 Day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출타가

통제된 상황 속에서 열린 생도 주간(Cadet Week) 행사는 지켜가던 생도들에게 활력소가 되었음은 물론, 57기·58기가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동문 선·후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도 학교는 매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들만이 만들 수 있는 색다른 문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주무관 길진규



발야구



축구



생도들의 응원 모습



### 생도의 휴식처 / 파리바게뜨

58기 기자생도 김영민, 원동규

수업과 과제로 생도들은 바쁘다. 요약고사, 중간고사,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어느덧 2021년 첫 학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바쁜 일과를 소화하는 생도들은 생도회관에 있는 푸드코트와 카페, 청운관의 파리바게뜨, 충성마트(PX) 등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그중에서도 평일 학과출장 간에는 파리바게뜨가 특히 큰 역할을 한다.

다양한 빵과 음료, 냉동식품 등으로 생도들의 사랑을 받는 파리바게뜨. 생도 생활의 첫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58기들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았다. 또한, 항상 웃는 얼굴로 생도들을 맞이하는 파리바게뜨 직원분들의 생각 또한 같이 들어보았다.

#### 58기 동기들아! 너희에게 파리바게뜨는 어떤 곳이니?

- 58기 이대 건: 고된 생활을 하는 나에게 허락된 지방낙원.
- 58기 이수빈: 가까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가기는 어려운 환상의 공간.
- 58기 박영언: 불타는 학구열을 식혀주는 오아시스.
- 58기 권용명: 이과인 내가 형운과를 가게 만드는 이유.
- 58기 정권 주: 빠른 눈발력과 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치열한 전장.
- 58기 남종엽: PX에게 미안해지는, 빵과 나만의 밀회 장소.
- 58기 박해연: 화려한 빵, 누누한 빵 모두가 생도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곳(사랑해 크림 단팥빵!)

모든 58기 사관생도들의 생각을 이들이 내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생도는 이처럼 파리바게뜨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생도들을 매일 만나는 직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매일이 치열한 전장 같은 파리바게뜨에 취재를 나가보았다.

**Q. 항상 많은 생도를 만나시는데, 서로 대화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고된 훈련과 학습을 병행하시는 생도분들께 저희 파리바게뜨가 편안한 휴식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한된 생활공간 속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내는 생도분들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지면서도 모든 과정을 마치고 끝내 임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다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목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항상 그 마음 그대로, 더욱 멋진 장교가 되시길 항상 기도합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음에도 예의 있게 이용해주시는 생도분들께 저희도 항상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Q. 혹시 생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없으신지요?**

A. 앞에 말한 것처럼 항상 예의 바르게 이용해주시는 분들이라 크게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아, 다만 소소하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입니다. 쓰레기들을 분류 별로 잘 버려주시고 빨대, 스푼, 포크, 영수증 등은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도 문제 없으니 조금은 편하게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관생도의 생활 / 생도모집 홍보 출장

57기기자생도 이경미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2021 홍보출장' 을 실시했다. 홍보출장은 미래 육군 장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사관생도의 꿈을 심어주고, 나아가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도움의 장이 되고자 하는 활동이다.

생도들은 각자의 전수 대학을 방문하여 홍보부스와 배너를 설치하고 포스터를 붙이는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 결과, 많은 관심을 끌어내며 노력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홍보출장을 통해 생도들은 육군3사관학교를 알리고 능률한 사관생도의 모습으로 모교 후배들 앞에 설 수 있었던 뜻깊은 순간이자 육군3사관학교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예비 생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생도모집 홍보출장을 실시하고 있는 생도들

### 사관생도의 생활 / 생도들의 학습 전략

57기기자생도 강석찬, 정용수

따뜻했던 벚꽃이 흩날리고 난 후 푸릇푸릇한 생기가 학교를 가득 메우고 있다. 얼어붙을 것 같던 계절이 지나 이제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여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생도대에는 또 한 번의 치열한 전투준비가 한창이다. 바로 기말고사이다. 생도들은 군사 분야와 더불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다. 생도들은 치열한 전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생도들의 Tip을 들어보자!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습할 때 과목별로 한번 더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고 암기하며 마지막으로 암기한 내용을 노트북을 이용해 타이핑을 하며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또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과목은 녹음을 이용해 이해할 때까지 반복재생하며 공부한다.

58기사관생도 신동현

수업 간 프린트나 책에 필기하고 후에 노트에 다시 요약정리를 한다. 또한, 내용을 암기하고 빈 종이에 암기한 내용을 써 내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 시험이 다가오면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강의를 해보는 것처럼 설명하며 공부한다.

58기사관생도 홍지민

수업시간에 밑줄 친 내용을 직접 수기로 정리하거나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며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어 공부한다.

58기사관생도 지영인

이처럼 생도들은 노트북이나 노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교과서를 만들어 공부에 활용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교수가 되어 설명하듯이 공부를 하고 있다. 다만 시험 기간에 생도들의 일정이 꼭 차 있어 일정들을 소화해 가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생도들이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다.

최소 시험 2주일 전에는 일정을 최소화하여 시험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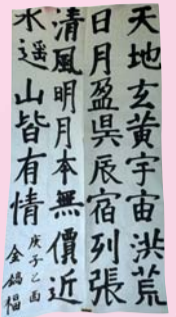


# 의무로 말라라



## 문화체육활동부서 소개

# 서예부, 미술부



서예부에서 쓴 글귀

지난호 두 번째로 소개했던 부서인 태권도부, 유도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할 부서는 서예부와 미술부이다. 육군3사관학교 정문에 있는 아름답고 웅장한 글귀인 ‘충성대’와 충성의식을 거행하는 충성연병장의 ‘통일문’ 글귀는 대체 누가 썼을까? 하고 한 번씩 의문을 가진 생도들이 있을 것이다. 어디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던 찰나, 서예부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서예부 안에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문무관에 도착하니, 붓을 들고 무언기에 열중하는 생도들이 보인다. 서예부와와의 취재를 시작해 보았다.



서예부 단체 사진

**Q. 본인 소개와 서예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서예부 부서장을 맡은 4학년 김정석 생도입니다. 서예를 보통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붓으로 글씨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계절이나 시간, 장소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취미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어 취미로 굉장히 좋습니다!

**Q. 서예부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A. 보통 충성제 기간에 서예부가 작품 전시를 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꼭 개개인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Q. 정문의 ‘충성대’ 글귀와 충성연병장의 ‘통일문’ 글귀는 누가 썼는지요?**

A. 네네! 사실 많은 생도가 글귀는 보았지만 누가 쓴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충성대’와 ‘통일문’, 그리고 호국정에 있는 비석의 글귀까지도 서예부의 박세호 강사님께서 직접 쓰신 글귀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서예부원들에게 한마디!**

A.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열망과 그의 필요가 그곳으로 그를 인도한 것이다”라는 데미안의 말처럼 여러분의 노력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Q. 서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A. 서예를 할 때는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때, 생각을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절제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를 잘 닦아 두면 나중에 원하는 글씨체를 습득하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 미술시간

서예부를 통해 서예에 대해 많은 점을 알게 되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중 맞은편에서 펜과 붓, 물감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생도들을 발견했다. 서예부와 달리 다양한 색깔과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바로 미술부였다.



미술에 열중하는 미술부

**Q. 본인 소개와 미술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미술부 부서장을 맡은 4학년 이다혁 생도입니다. 우선 미술은 인물이나 풍경과 같이 자신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리거나, 본인이 그것을 보며 생각하고 느낀 것을 도화지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미술부는 생도대의 휴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품을 전체 생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술부원들에게 한마디!**

A. 미술부장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 그려서 그게 조금 미안합니다(하하). 앞으로 미술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을 같이 그려나가며 같이 추억을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호는 학교의 서예부와 미술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육군3사관학교에는 유도, 태권도 등 동적인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닌 정적인 활동도 있다는 것을 알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도 심신을 단련하며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관생도들.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부서를 만나게 될지 모두 기대하시라!

58기기자생도  
김시현, 정원표

**Q.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A. 보통 인물화나 풍경, 웹툰과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주로 그리는 편입니다. 앞으로 해보지 않은 분야도 많이 시도할 계획입니다.

**Q. 미술부의 올해 계획은요?**

A. 작년 충성제에 하지 못한 전시회를 올해 충성제에는 실시하여 우리 미술부의



미술부 활동사진



### 칼럼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



중령 민병후  
사회학처장

**어느** 한 상인이 집에 세 명의 일꾼을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주인은 장사를 위해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일꾼을 불렀다. 첫 번째 일꾼에게는 다섯 달란트, 두 번째 일꾼에게는 두 달란트, 세 번째 일꾼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며 이를 각각 지혜롭게 사용해 보라고 당부하였다. 시간이 흘러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세 명의 일꾼에게 맡겨놓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일꾼은 주어진 다섯 달란트를 이용하여 작은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벌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일꾼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두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두 달란트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은 주인이 자신에게 준 한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손해를 보거나 도둑이 훔쳐갈 것이 두려워 주인이 올 때까지 땅속에 묻어 두었다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일꾼을 크게 칭찬하며 주었던 각각의 달란트와 자신들이 벌어들인 달란트까지 모두 주며 크게 칭찬하였고 세 번째 일꾼은 맡겨놓은 한 달란트마저 뺏고 집에서 쫓아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해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달란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첫 번째 일꾼과 두 번째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고 시도하였기에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 자신이 무엇을 얼마만

큼할 수 있는지 알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일꾼은 스스로 해보기도 전에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한계를 두고 '나는 장사에 소질이 없어서 어차피 장사를 해봐야 손해를 볼 거야! 그럴 바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준 한 달란트라도 그대로 남겨두는 게 더 이익이야!'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일꾼이 이익을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라 두 일꾼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용기 있게 장사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칭찬한 것이라고 본다. 주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일꾼이 장사를 시도하여 주어진 달란트를 모두 손해 보았다고 해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도들도 이 이야기의 일꾼들처럼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도 생활 속에서 먼저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짓고 해보지도 않고 못 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한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용기가 어느 순간에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못하는 것은 직접 해보았을 때 느끼는 것이지만,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생도들도 무엇이든 질문해보고 시도를 통해 답을 찾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패기 있는 생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장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달란트: 고대의 중량(화폐)단위, 영어로는 Talent로 재능, 소질, 역량으로 해석됨.



###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춰야 할 사관생도의 자세



중령 박정환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과 교수

**우리가** 최근 살아온 시대는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를 이룬 3차 산업혁명 시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에 우리 군은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계획에 의거, 국방개혁

2.0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정책에 발맞추어 학교에서도 '21년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초지능 사회에서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고취하여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망 등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위한 융·복합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해 창의 융합과목과 연구를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군의 주역이 될 사관생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국방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유능한 사관생도가 되길 기원하며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보스포럼은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

요한 스킬 16가지를 제시했다. 기초 소양으로는 문해력, 신술능력, 과학 소양, ICT 소양, 금융 소양을 제시하였고 문화적인 시민 소양으로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을 제시하였으며 성격적 소양으로 호기심,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사회문화적 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으로 리더가 될 사관생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부하들과 직접 호흡하고 적과 최일선에서 대처하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관생도들은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역량 확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상대방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첫째.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폭넓은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전공과 융합 교육을 충실히 공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변화의 트렌드를 잘 받아들이며, 궁극적으로 업무에 적용하여 사회와 병행 발전하는 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부하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복무 간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군이 사회 발전에 발맞추어 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각종 교육, 훈련, 행정 등 부대 생활 간 위협하거나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것들은 정리하고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스마트한 부대를 만들겠다는 마인드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되어 복무 환경이 향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대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하를 보살피고 섬기며 희생을 통해 신뢰를 얻음으로써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야말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장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국방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유능한 사관생도들이 되길 기원한다.



사회 저명인사칼럼

## 종자 전쟁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녹음이** 한창인 6월이다. 대학 한 곁에 피처럼 붉은 개양귀비가 아름답게 피었다. 그 자태가 아름다워서 슬그머니 집에서 키워보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 학교 원예사에게 꽃씨를 얻어 볼 요량으로 온실을 찾아갔더니 뜬금없다는 얼굴로 요즘 씨앗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내게 반문한다. 씨앗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저 많은 꽃은 어디서 오나요?”라고 물었다. “모두 모종으로 옵니다. 우리도 씨앗 구경을 못해요”라고 한다.

생물학 교수를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종자회사가 터미네이터 진(terminator gene)이라는 말살 유전자를 발현시켜 꽃들이 씨앗을 맺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미국의 농무부와 대기업의 유전자 조작 종자회사가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해 개발했다고 한다. 이 유전자가 삽입되면 식물은 2세대 이후의 발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봉선화꽃씨를 받아 손톱에 물들이던 추억은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6.25전쟁으로 인해 많은 물자와 건물이 불타재로 변해버린 1952년, 인삼전매지청 직원 다섯 명이 당시 적진이었던 개성으로 잠입하여 인삼 종자를 가져온 삼종회수작전(蔘種回收作戰)이 생각났다. 그래서 우리 토종 종자들은 모두 한국에 다 잘 있는지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 보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검색됐다. 우리나라 유전자원센터는 2007년에 6.25전쟁 당시 미군이 갖고 간 자생 농작물 34종 1,679점, 2008년에는 일본이 1930~40년대 채취해 간 32종 1546점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류들은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한다. 참 다행이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니 어서 자생력을 길러 식량만은 타국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다. 아직 고향에 가지 못한 실항민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그분들 모두 그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을 씨앗 삼아 그리움과 서러움을 견디고 있었다. 구술 도중 어떤 분은 평양 김일성 대학 합창반이었던 그 시간으로 자꾸 되돌아가고, 어떤 분은 함흥에 두고 온 동생과의 추억을 되뇌고, 어떤 분은 학도의용군으로 지원하던 젊은 날의 용기 가득한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버리곤 한다.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떠난 고향을 지적에 두고 가지 못하는 그분들의 아픔을 되새기는 6월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들 나이 즈음이 되면 언제를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할까? 여러분 모두 가장 소중한 기억의 씨앗을 바로 지금 심어두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회 저명인사칼럼

## 지휘관의 역할과 자세



**손태순 대표**  
(사)한국비파괴검사  
협회 회장

**앞으로** 사관생도들은 작은 부대이든 큰 부대이든 지휘관이 되어 부대원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은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와 매우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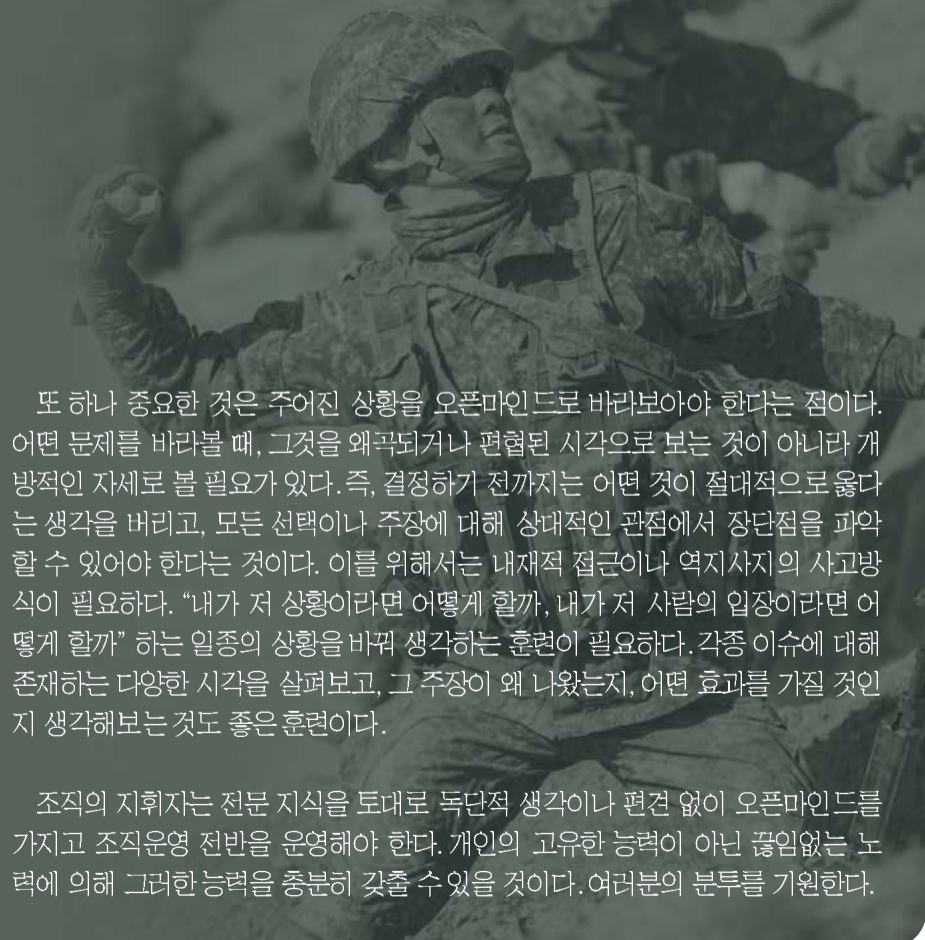
실제 지휘관이나 경영자는 가져야 할 자질에도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을 관리하고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조직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관리할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의 장점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스페셜리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근력을 갖출 수 없다. 일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능과 같은 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이다. 한 우물을 성실하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열정과 끈기가 스페셜리스트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대소를 막론하고 회사나 부대를 관리하려면 전문가적 자질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조직이든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너럴리스트의 자질을 지녀야 한다.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능력을 개인적인 지적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별다른 지적 능력이 없는 분들도 정말 기업이나 부대를 수준 높게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분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제너럴리스트에게는 무엇보다 판단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운명이 달린 위기의 시기나 전환점의 시기에는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져야만 조직을 존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전문적 지식을 쌓는 것과 다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오픈마인드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주어진 정보 내에서 바람직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폭넓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수단적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어두면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을 오픈마인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왜곡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로 볼 필요가 있다. 즉,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선택이나 주장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이나 역지사지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일종의 상황을 바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각종 이슈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그 주장이 왜 나왔는지,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다.

조직의 지휘자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독단적 생각이나 편견 없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운영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 개인의 고유한 능력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분투를 기원한다.



# 트렌드 코리아 2021

## 자본주의 키즈

2021년을 이끄는 소비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2021이란?

매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트렌드 코리아 2021> 책을 발간한다. 올해는 "COWBOYHERO"에 맞춰 10가지 키워드를 소개했는데, 카우보이 정신으로 날뛰는 바이러스를 잡아내길 바라는 희망의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 이후 달라질 소비 경제인 '브이노믹스(V-nomics)', 집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이야기, '레이어드홈', 박세리 키즈라는 말에서 차용한 자본주의를 체화하며 자란 세대의 이야기인 '자본주의 키즈', 갭 신드롬에서 시작된 콘텐츠 소비인 '롤코라이프', 최근 산린이들의 활약으로 대표되는 '#오하운',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의 행태인 'N차신상', mxi 테스트가 쓰여진 나를 찾는 사람들의 니즈에서 시작된 '레이블링게임', 비즈니스와 관련한 '거침없이 피보팅'과 'CX유니버스' 키워드가 있다. 마지막으로 브이노믹스 시대에서 우리의 생애 전략은 인간을 향해야 함을 상기하며 '휴먼터치'라는 키워드로 마무리된다.



이수진 박사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자본주의 키즈란 무엇인가?

이중 '자본주의 키즈'라는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사관생도가 속한 세대, MZ세대의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소비 트렌드 중 하나인 자본주의 세대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선택했다. 박세리, 김연아 키즈 등 흔히 어린 시절 그 시절을 풍미한 시대적 아이콘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후세대들 00키즈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키즈는 '자본주의 논리에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꼭 젊은 세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IMF 위기 이후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진 기성세대도 포함될 수 있다.

### 자본주의 키즈들의 특징 : 광고 · 소비 · 투자에 대한 태도

자본주의의 3대 요소인 광고 · 소비 · 투자 영역에서 자본주의 키즈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면모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상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없는 채널을 보면 댓글에 유튜버에게 광고를 붙이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곤 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본주의 키즈이다. 광고를 시청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유튜버의 수익을 늘려주는 일이며, 애정 표현이자 자본주의적 팬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에는 정당한 지출이 따른다"는 시장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광고를 콘텐츠 구독료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이들은 남다르다. 욕망에 가장 충실한 소비 중 하나가 바로 명품 소비다. 자본주의 키즈가 아닌 이들에게 명품 소비는 '부끄러운 자본주의

의 민낯'의 비합리적 소비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 키즈에게는 당연하게 '내돈내산' 한 나만의 취향 소비일 뿐이다. '플렉스'라는 단어가 이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있다. 돈 공부에 매진하고 투자에도 열정적이다. 자신의 소비 혹은 자본관리에 있어 주관이 매우 뚜렷하다. 꼭 자본을 통한 투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능력 혹은 재능으로 소액을 벌기도 한다. 자본주의 키즈일수록 'N잡러'일 확률이 높다. 직장인일지라도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올리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판매한다.

### 자본주의 키즈가 등장하게 된 배경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소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키즈들은 사람을 경제학적 사고로 환원시키는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이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들은 사실 불안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인적자원이어서 사회에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대표적인 재능기부 플랫폼 토티링, 크몽 (출처: 각 플랫폼 웹사이트)

에 대한 불안에는 역설적으로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키즈들은 이에 대해 영리하게 접근하는데, 마음속의 장부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가격 대비 마음의 비용'인 가심비를 극대화한다.

### 자본주의 키즈가 주는 시사점

자본주의 키즈는 자신의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알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체성이 강한 소비자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특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도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자도, 그 안의 의미

## 민화 속 이야기 ②

김미 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문자도 <조선대학교 박물관 소장>

‘문자도’라는 민화가 있다. 글자에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글씨를 화려하게 장식하여서 ‘꽃글씨’라고도 한다. 원래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등 여덟 글자를 그림처럼 그린 것이며, 효제도(孝悌圖) 또는 팔자도(八字圖)라고도 한다. 각각의 글자 안에 각종 그림이나 색채로 장식하여 글자 자체가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 여덟 글자 말고도 다른 한자나 한글에 문자도처럼 그리는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이 많다. 여덟 개의 글자 중 ‘효(孝)’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보자.



효를 뜻하는 다양한 문자도들

민화에서 효(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은 잉어, 죽순, 부채, 거문고 등이 있다.

1. 잉어 : 중국 진나라에 왕상(王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계모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구박하였지만, 한결같이 효를 다했다. 계모가 병이 들어 온천지가 얼어붙은 한겨울에 잉어를 구해오라고

말했고, 효자 왕상이 강으로 나가 얼음을 깎더니 잉어가 탄복하여 스스로 올라와 계모에게 잉어를 드렸다는 이야기에서 잉어는 효를 상징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죽순 : 중국 오나라에 선비 맹종(孟宗)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고민하던 그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어머니의 병은 죽순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하지만 한겨울에 죽순을 구할 수 없어 대나무밭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죽순이 돋아나 그것으로 노모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에서 효를 상징하게 되었다.

3. 굴 : 오나라 왕 손권의 참모인 육적에게 원술이 굴을 줬는데, 육적은 먹고 품고 있다가 인사를 하다가 그만 떨어뜨렸고 이에 원술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묻자, 어머니께 드리려고 안 먹고 품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어린 육적의 효심에 감복했다는 이야기에서 효를 상징하게 되었다.

4. 거문고 : 순(舜)임금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외에 부채를 그린 것은 부모의 머리맡에서 더울 때 부채질을 하며 시원하게 해 드린다는 의미로 효를 상징하게 되었다. 문자도 효(孝)자를 보며 부모님과 공경해야 할 분들을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 참고자료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99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자도(빛깔있는 책들) 1993년, 대원사  
꿈과 사랑(매혹의 우리민화) 1998년, 호암미술관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한국세시풍속사전, baidu, naver



# 홈짐 운동

※ 홈짐 운동 모델 및내용 검수 : 체육학과 교수 소령 구 주 현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홈 트레이닝)’. 홈트가 보편화 되면서 ‘홈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홈(Home)과 체육관을 뜻하는 짐(Gym)의 합성어로,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집에 마련해놓고 꾸민 나만의 체육관을 뜻한다. 흔히, 파워랙(Power rack) 하나만 있으면 홈짐을 구성할 수 있는데, 파워랙으로 수행할 수 있는 3대 운동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3대 운동 : 웨이트 트레이닝의 여러 운동 중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크다고 여겨지는 스쿼트(Squat), 벤치프레스(Bench press), 데드리프트(Deadlift)를 추천하는 용어

### 스쿼트

#### 준비

1. 바벨을 가슴 위쪽 높이로 올려놓는다.
2. 바벨이 어깨 뒤쪽에 놓이도록 서서 양쪽 비를 잡는다.
3. 바벨을 들고 어깨너비로 발을 벌려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

#### 실행

1. 엉덩이를 뒤로 밀고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 앉으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이때, 무릎이 90도 각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내려간다.
2.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숨을 내쉰다.



### 벤치프레스

#### 준비

1. 평평한 벤치에 등을 대고 눕는다.
2. 다리를 벌리고 발을 바닥에 붙인다. 이때, 발가락이나 발뒤꿈치가 바닥과 붙어 있어야 한다.
3. 등을 굽힌다.
4.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그림을 잡고 바벨을 분리한다.
5. 바벨을 든 상태에서 손목을 곧게 핀다.

#### 실행

1. 바벨을 가슴 쪽으로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팔꿈치를 45도 각도로 만든다.
2. 바벨을 들어 올리며 숨을 내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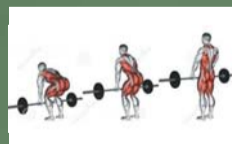
### 데드리프트

#### 준비

1. 바벨 아래 발을 엉덩이 너비만큼 벌린다. 이때, 아래를 내려다볼 때 바벨의 위치는 발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2. 상체를 숙인 후 어깨너비 정도의 그림으로 바벨을 잡는다.

#### 실행

1. 몸을 세우고 등과 팔을 편 상태로 유지하고 서서 다리 앞쪽으로 바를 닿겨 다리로 끌어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2. 몸이 완전히 일어난 뒤 어깨를 뒤로 닿겨 숨을 내쉰다.
3. 다시 엉덩이를 뒤로 밀고 바를 다리 앞쪽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올곧은 등을 유지한다.
4. 바가 무릎 아래를 통과하면 서서히 내려놓는다.





## 학교 발전재단 임시 이사회 개최

6월 5일 학교 발전재단 이사장인 박종진 예비역 대장(3사 17기), 이사진 등 11명과 학교장(소장 여운태),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조국실에서 학교 발전재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책토의 진행과 더불어 홍보영상 시청, 22년도 생도모집 홍보 결과보고 등의 학교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시 이사회가 끝난 후에는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3사 총동문회



학교 주요활동을 소개에 이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참석자들



3사 21기 장활석 동문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



3사 24기 류병수 동문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

## 전문가의 길, 군사전문가의 완성 기술사!

### 동문(同門)의 소리

김 명 철예 소령, 3사 24기, 서울주택도시공사센터장



군사전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도는 군사훈련과 학업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한다. 전후방 각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군사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지만, 군부대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군 건축물과 군사시설물의 기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임무 수행하는 기술사(技術士)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아 본 글을 통하여 기술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인문사회계열 전문자격증에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있고, 공학 계열 전문가에는 변리사와 기술사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자격증은 대학 재학 중에도 응시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사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후 6년의 실무경험 또는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실무경험이 요구되어 취득에

있어서 훨씬 까다롭다. 또한,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보다 더 합격률이 낮은 기술사 종목도 있다. 사관생도의 경우는 졸업 후 군 경력 6년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육군소위로 임관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군 경력 4년 실무경험이 있어도 가능하다. 최고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 취득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선배 기술사를 활용한다.

국방기술사회에서는 군무원, 현역, 예비역 장교들이 다양한 종목의 기술사를 취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 <https://cafe.daum.net/ndpea.or.kr>

현재 130여 명의 3사 장교 기술사들이 현역, 예비역, 군무원으로 전국에서 활동 중이며, 인근의 대구·영천에서 근무하는

기술사들도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

#### 2. 군 경력관리를 기술사 실무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교로 임관 시 병과에 따라 기술사 시험응시에 유리한 병과와 그렇지 않은 병과가 있으나 크게 중요하진 않다. 공병이 타 병과보다 국방기술사회의 숫자가 많지만, 타 병과에서도 도전하여 합격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학 계열이 아닌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졸업했거나 공병이 아닌 보병, 포병, 기갑 등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술사 취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II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예를 들어 소방분야의 경우 2019년부터 군부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을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응시 시에 인정하고 있으니 군부대 근무 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하여 경력관리를 하고 경력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사)한국소방시설협회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문사회 학과나 보병, 포병, 공보정훈 등 기술사와 관계없는 것 같은 병과도 기술사 취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군 경력관리는 꼭 필요하다.

#### 3. 군 전투력과 사회 발전 전문가로부터 발휘된다.

군 계급은 이등병부터 병장,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장군으로 구분하듯 기술등급도 종목에 따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관리사, 기술사로 구분된다. 대대, 연대, 사단을 지휘하는 군 전투력의 최고 책임자인 영관장교와 장군이 없다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하겠는가! 기술사 또한 군사전문가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전역 이후에도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100세 시대까지 활동할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현역, 예비역 동문과 생도들이 임관 이후에 국가기술자격 최고등급인 기술사를 취득하여 군사전문가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총동문회-청풍리조트 업무 협약식

6월 9일 총동문회와 청풍리조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청풍리조트는 총동문회 소속의 3사 동문 누구나 청풍리조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3사총동문회



▲ 한동주 총동문회장(좌)과 청풍리조트 신상균 대표이사(우)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창보종합건설(주) 회관 건립기금 전달



▲ 맹진호 회장(좌)과 한동주 총동문회장(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36차 정기총회 간 자랑스러운 3사인상을 수상한 창보종합건설(주) 맹진호 회장(4기)이 6월 22일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3사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회관 건립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3사총동문회

### 3기 회장단, 동문회 발전기금 300만 원 전달



▲ 3기 회장단이 동문회 발전기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3기 동기회장 박유용, 운영위원장 김주원 등 3기 회장단 5명은 지난 2020년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때 전달하지 못했던 동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300만 원을 6월 23일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전달했다. 3사총동문회

### 3사 5기 전설들의 특별한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포천 38선휴게소 출발, 모교까지 600km 대장정 전적비 순례



▲ 5기 동기생들이 전적비 순례 마지막 종착지인 학교 정문 위령소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기 졸업생 40여 명이 올해 임관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1971년 임관하여 어느덧 대부분 70대 중반의 노장이 된 이들이 포천 38선휴게소를 출발하여 의정부, 서울, 천안, 대전, 칠곡을 거쳐 모교인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에 이르는 600km, 전적비 순례에 나선 것이다.

5월 18일 모든 준비를 마친 동기들이 포천 38선휴게소를 도보로 출발하여, 때 이른 더위와 피로를 극복하고 마침내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지난 25일 모교인 육군 3사관학교에 도착하여 후배 생도들의 환영을 받았다.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시간을 제외한 28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동기생들은 짧은 생도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기념품을 전달하고, 이어 영내에 있는 순직자 충혼비를 찾아 순직한 선후배를 기렸다.

5기 동기회장 김창주(예비역 소령, 74세)는 “전적비 순례를 하면서 호국영웅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했다.”며 “3사 전체동문중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군을 위해 헌신했던 청년시절을 함께 돌아보면서 동기생들이 마음을 한데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3사 총동문회



▲ 충성연병장 사열대에서 기념행사 식순에 맞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학교내 충혼비 참배 후 기념사진 촬영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1. 4. 26~ '21. 6. 24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3억 4백만원(2021.6.24 기준)

### ■ 3사관학교 발전에 동참하는 특별기부자

이희범(육사#41) 2(400), 여운태(육사#45) 10(130), 신상범(육사#41) 2(5), 김호길(육사#48) 2(51), 두석주(육사#51) 2(190), 이우진(육사#54) 2(62), 조상근(육사#56) 2(135), 변용성(육사#58) 2(101), 이귀현(육사#58) 2(95), 이주실(육사#58) 2(80), 김대영(육사#59), 2(168), 김진찬(육사#61) 2(65), 홍희중(육사#61) 2(97), 이한우(육사#63) 2(25), 오민경(육사#65) 2(40), 오병진(육사#65) 2(18), 홍인재(육사#65) 2(30), 문준호(육사#67) 2(42), 이찬우(육사#68) 2(40), 조지웅(육사#68) 2(2), 권성진(육사#69) 2(28), 강세혁(육사#71) 1(2), 한덕수(학군#26) 2(107), 남기웅(학군#29) 2(12), 구희곤(학군#32) 5(105), 서필석(학군#34) 2(12), 임문택(학군#34) 2(6), 이두진(학군#35) 2(18), 곽홍렬(학군#37) 2(30), 송경재(학군#37) 2(24), 김나람(학군#47) 2(31), 정우람(학군#46) 2(18), 이세훈(학군#48) 2(23), 홍현신(학군#48) 2(21), 나상철(학군#49) 2(15), 윤정훈(학군#50) 2(27), 이선호(학군#51) 2(10), 최재호(학사#29) 2(124), 이준수(학사#35) 2(108), 김기호(학사#37) 2(8), 예한석(학사#37) 2(26), 윤경주(학사#46) 2(14), 임도현(학사#54) 2(103), 구주현(학사#55) 2(26), 박수영(학사#56) 2(18), 성현애(학사#56) 2(46), 강진선(학사#57) 2(12), 심정현(학사#58) 2(34), 김소현(여군#46) 2(19), 김형태(간부#22) 2(54), 강찬영(군중#61) 2(30), 최윤정(간사#38) 2(39), 송소연(간사#58) 2(20), 이대희(준위) 2(29)

▶ **부사관** : 진정철(원사) 2(3)

▶ **군무원** : 김인수 2(36), 류재은 2(192), 안영주 2(42), 양성우 2(64), 유정호 2(17), 이수진 2(10), 정혜란 2(21)

### ■ 졸업·재학생도부모('21.4.26~'21.6.24기부명단)

####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조경해( #45 황정태 모) 10(795), 성동모( #50 성열환 부) 4(200), 안순봉( #51 박상응 모) 20(370), 김현미( #52 오치원 모) 2(46), 이영미( #52 황성규 모) 6(292), 정정화( #52 조강현 모) 2(339), 박일심( #53 정필승 모) 4(122), 이영빈( #53 오경철 모) 2(44), 조정숙( #53 유영빈 모) 4(118), 윤명남( #54 이지호 모) 10(255), 홍성은( #54 홍동민 부) 2(234), 서완수( #55 서지찬 부) 4(78), 유현구( #55 유경운 부) 2(130), 정원섭( #55 정준영 부) 2(116), 고경옥( #56 최현준 모) 6(63), 송학빈( #56 송용준 부) 2(62), 정희숙( #56배우회 모) 20(1,160)

#### ▶ 재학생(4학년/57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강석근, 강해영, 김경남, 김근택, 김미량, 김승달, 박경석, 박동현, 심영선, 양내석, 오유미, 이윤주, 임승찬, 정재현, 지미리아, 한성희

#### ▶ 재학생(3학년/58기)학부형(입금자 성명)

김종용, 박종현, 구행분, 김도희, 장경옥

※ 개인 기부현황은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내기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분미확인(054)330-3180/3182 연락 바랍니다. 김무성 10(10), 황수현 1(1)

###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21.4.26~'21.6.24기부명단)

- ▶ 1기 김용하 4(146), 남준호 20(1,333), 임관택 2(78), 최윤희 2(80)
- ▶ 3기 장영집 10(280), 한민우 1,000(11,000)
- ▶ 9기 권영호 10(406), 김현기 6(1,173), 윤지환 6(138), 최병학 10(1,220)
- ▶ 13기 문성욱 10(210)
- ▶ 14기 김중환 2(54), 안호 30(1,840), 이순진 20(770), 이용진 10(240), 성수환 500(1,000)
- ▶ 15기 김성연 2(523)

- ▶ 16기 원홍규 6(306), 윤영식 10(220), 이종우 2(157), 황병태 2(306)
- ▶ 17기 박종진 30(246)
- ▶ 18기 구연덕 2(126), 금용백 6(564), 이기환 3(113)
- ▶ 19기 이경희 2(170), 이종형 6(247), 이창호 6(570), 홍성식 2(193)
- ▶ 20기 김윤희 2(64), 박권순 2(145), 서정열 4(477)
- ▶ 21기 신철수 32(1,112), 김문중 200(200), 장활석 500(600)
- ▶ 22기 권순태 2(50), 김면수 10(55), 이진성 2(257), 장경호 2(42), 조태환 2(139)
- ▶ 23기 김태일 2(228), 배요식 1(239), 신영찬 2(70), 오승욱 4(258), 최승환 2(4), 허강수 4(275)
- ▶ 24기 곽종만 4(48), 권금락 4(280), 권오봉 2(211), 김도협 2(230), 김대용 5(5), 김성래 4(26), 김지영 10(943), 남용구 3(273), 류병수 500(508), 모경원 2(225), 박세철 2(68), 박원석 3(9), 방상태 2(79), 안인준 2(92), 이문희 2(93), 이석근 3(8), 정정현 2(189), 전효원 5(5)
- ▶ 25기 김남용 2(132), 문봉성 2(150), 이은전 4(46), 이종현 2(49), 장광선 6(372), 장무수 2(47), 전희준 2(303), 조재희 2(121), 홍은표 2(198)
- ▶ 26기 고창준 10(240), 서재원 8(23), 양성만 1(9), 유근환 2(333), 이덕우 2(124), 이완주 2(125), 이태인 4(58), 임우영 2(242), 장용민 2(121), 함운식 2(5)
- ▶ 27기 김덕중 2(66), 김성오 4(26), 김용범 4(14), 김지덕 2(20), 김호복 8(24), 석수열 2(43), 오병욱 2(16), 원희문 10(235), 이희순 2(237), 정철근 2(42)
- ▶ 28기 권승영 1(24), 권양철 2(106), 김진길 2(78), 김창현 2(163), 김현식 2(11), 박용섭 4(169), 서청수 2(170), 유정일 2(35),

- 윤석찬 3(139), 박기수 2(89)
- ▶ 29기 김강식 2(243), 김용식 2(72), 김태영 4(26), 박성훈 2(151), 박태용 2(130), 최영태 10(111), 이상일 2(186), 이의규 2(113), 임성호 2(162), 최인섭 2(122), 현대식 2(148)
- ▶ 30기 김종권 2(82), 김효성 2(42), 남진오 2(53), 이병길 2(17), 이진 2(147), 임상달 2(117), 주경호 2(111), 홍상범 2(35), 함민호 2(98)
- ▶ 31기 권동호 4(56), 김민식 4(94), 김영태 2(179), 김희엽 2(224), 염향수 2(134), 이재춘 2(208), 이훈복 2(46), 전경인 2(31), 최대집 2(44)
- ▶ 32기 권관덕 4(308), 김화용 2(111), 사인우 2(134)
- ▶ 33기 김남식 4(182), 김상선 4(144), 김성근 4(140), 김현규 4(388), 남석진 2(136), 노일 6(158), 안경일 2(233), 이정표 6(71), 조재봉 2(108), 권해욱 4(14), 홍종원 2(28)
- ▶ 34기 강지혁 10(20), 김기수 2(179), 김운성 2(42), 김홍식 6(429), 이무이 2(402), 임창훈 2(79), 정창근 2(104), 정춘황 2(55), 조수창 2(179), 홍영기 2(23), 정승필 1(11)
- ▶ 35기 김경철 2(7), 김병수 2(79), 김수열 2(67), 박병준 6(302), 박성현 9(25), 박시근 2(18), 송명성 2(56), 이문희 2(147), 임창규 2(109), 장춘삼 2(142), 전성광 2(36), 정영석 2(104), 정호준 4(86), 허중수 2(23), 한중훈 4(333)
- ▶ 36~56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연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 ▶ 57기 김도윤 10(80)
- ▶ 58기 김선홍 2(2), 황영호 3(9)

## 학교발전의 최일선에서 함께 호흡하는 재단

2021년 6월 4일, 재단법인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박종진 이사장 등 이사진 일행이 학교 공식방문을 가졌다. 금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총 2억 7,230만원(생도하의견하비(1억 1,300만원), 생도모집지원 및 장학금(1억 1,430만원)) 지원 의결 후 전반기 차질없이 학교발전을 돕는 가운데 기금의 활용성과 검토 및 하반기 추가 지원소요 파악과 협력 그리고 임시이사회 개최를 위해 방문하였다.

학교장(여운태 소장)은 그간 학교발전기금 활용사업성과 및 향후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인력획득, 교육발전, 학교연구역량 확충, 생도복지여건 개선 등 주요추진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재단의 역할증대를 위해 학교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표하였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장활석 재단이사(3사#21, 세계산업기



계(주) 대표)가 500만원, 모교방문차 함께한 류병수(3사#24) 졸업생이 5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여 졸업생들의 뜨거운 학교 발전의지를 표하였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손지영(3사#19) 교의감사 후임에 세무회계법인 임원경력의 회계실무에 밝은 이재길 신입감사(3사#32, 법학박사, 엘티씨엔엠(주) 대표)를 선임하였다.

현재 학교발전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홍보의 첨경은 모금자가 아닌 사용자(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의 효용성을 대외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수많은 졸업생과 국민들에게 학교발전의 실상을 흥미롭게 전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재단 이사진 방문은 학교발전의 실상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이러한 상호 노력도 약 100년을 향한 육군3사관학교의 발걸음 속도를 가속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발전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명은 띄워쓰기 없이 6자 이내로, 또는 전화연락
- 졸업생 → (예시) 00기김삼사,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연락
- 재학/졸업생 부모 → (예시) 58박조국부, 58이충성모 / 00홍길동부(숫자는 자녀 기수)
- 세금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기티문은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054) 330-3180, 3182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